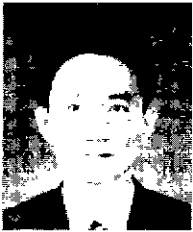


□ 컴퓨터 단상 □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가 되었던 북경 생활

순천향대학교 백인천*



몇 년전에 한 리더쉽 카운셀러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에 관한 책을 최근 다시 한 번 인상깊게 읽고 있는데 이 책은 3년전 과학재단의 한·중 과학자 교환 연수 프로그램으로 북

경에 가서 생활할 때도 계속해서 자극받고 변화시키는데 좋은 영향을 주었고 지금은 보면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관찰해 볼 수 있게 한다. 이 책은 지금까지 수많은 회사, 단체에서 경영자, 지도자에서 일반 사원 및 각계 각층의 사람들에게 읽혀졌고 많은 사람에게 변화와 혁신의 계기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이 책을 소개하는 것은 읽은 독후감을 쓰기 위해서는 아니다. 이 글에서 필자가 연구했던 컴퓨터 분야에 대한 소개뿐 아니라 중국에서 느끼고 배웠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소개하기 위해서이고 또한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우리의 사고를 바꾸어야 한다는 기본원리를 직접 경험하게 해준 필자의 북경 생활을 소개하는 데 먼저 꺼내고 싶은 내용이기 때문이다.

필자의 한 재미있는 친구는 북경에 와보니 우리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한, 토마토를 볶아 먹거나 국을 끓여 먹는 요리를 보고는 처음에는 먹기가 곤란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토마토도 채소에 속하는 식물이고 채소를 볶아 먹는데 먹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사과를 고추장에 찍어먹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해서 크게 웃기도 했었지만 내게

는 북경에서 내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더 많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되었다.

개인적으로 중국에서 패러다임이 변하기 가장 힘들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이들의 장사속성이었다. 대한민국이라는 풍요로와지고 있는 나라에서 별 부족함 없이 지내왔고, 그래도 외국인이 왔을 때 그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호의를 베풀어 주고 있는 모습을 보아왔던, 또 그러한 방식에 따라 적응되어 왔던 나의 패러다임으로는, 말로 들어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중간의 협약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꼬치꼬치 따져가며 한푼의 돈이라도 더 받아내려는 그들을, 그래 원래 그런 사람들이지 하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아시아의 유태인이라고 불리는 이 나라 사람들, 학생시절부터 철저히 대화 및 협상술까지 배우는 그들, 현재의 가난을 이겨야 된다는 마음들 그리고 그렇게 나에게 처우하는 그 당사자의 살아왔던 내력을 알게 되면서, 그들 속에 형성된 패러다임을 알게 되었고 나의 패러다임도 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면서 좀 더 일찍 내가 변했으면 더 유익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많이 있다.

실제 그곳에 처음 가서 쉽게 착각하기 쉬었던 것이 길으로 보여지는 그들의 외모였다. 외관상으로 보면 대학교수나 대학 행정부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우리 나라의 오래 전 농부 같은 모습이다. 길으로 보여지는 가르치는 방식이나 학생들의 생활 모습을 보면 참 비민주적이고 뒤쳐진 모습이다. 평균 수입이 이들의 십수배가 되는 우리의 경제적 여건을 비교할 때 참 우월감이 느껴지고 이들이 비참하

*정회원, E-mail : skpaik@ait.or.kr

게 느껴지는 것이,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하지만 마음속 깊이 내재해 있던 생각이었고 패러다임이었다. 반면 그들은 수 천년간 우리에게 주도적인 위치에서 영향을 주었던 자존심을 갖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 대학에서 학생들이 데모로 수십일 동안 공부를 못하고 있을 때 이곳 학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아침 일찍 기상해서 운동하고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해서는 낭비하는 시간 없이 자신들의 숙소에서 몇 분도 채 안되는 거리의 강의실에 가고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숙소로 돌아오는 모습은 웬지 더 진지하게 느껴지고, 우리 나라가 파업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을 때 날마다 우리의 십몇분의 일도 안되는 박봉에도 성실히 출근하는 자전거의 물결은 웬지 더 힘이 있게 느껴졌다. 우리의 상품이 중국의 상품에 점점 밀려나간다는 소식이나 우리나라의 전자공업이 중국에 덤미를 잡혔다는 소식을 들을 때, 내가 불안하게 느껴졌던 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게 된다. 수년전 독일의 한 유명한 회사는 연공서열제를 정리하고 능력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국도 IMF를 전후로해서 벤처 기업의 육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실행하고 있다. 이미 패러다임을 바꾼 몇몇 나라들의 성과를 볼 때 원칙에 있어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중국도 20년 전에 패러다임을 크게 바꾸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기치를 내걸고 새로운 역사의 큰 수레바퀴는 벌써 몇 바퀴가 돌았고 그 속도는 한층 가속화 될 것이라는 데에 모두들 공감한다. 순식간에 바뀐 개념들로 혼란이 있지만 많은 중국 사람은 빨리 발전하는 중국의 모습에 자신감도 갖고 자신들이 미래에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 중의 하나로서 부상하는 것에 대해 자존심도 키우고 있다. 이 사람들은 먼저 변화를 시도해서 실패했던 국가의 교훈을 잘 분석해서 간직하고 지금까지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왔으며 앞으로도 적절한 담력과 협상력 그리고 사회주의 기반의 체제를 이용해 경제성장을 계속해서 이루리라 보여진다. 최근 우리 나라의 중국, 홍콩 그리고 대만과의 교역량이 어느 나라보다 많다는 것은

중국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 나라의 모 회사는 중국에서 많은 흑자를 냈고 실제 중국에서 인지도가 아주 높다. 하지만 이것이 지속될지는 미지수이다. 그런데 만일 지속되지 못한다면 그 반대가 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가정할 때 앞으로의 많이 달라지게 될 상황은 나를 근신하게 한다.

6년전 중국과의 공동연구를 시도했던 북경의 한 대학의 대학원 연구실에서 VLSI설계 및 CAD 분야를 함께 연구했던 적이 있다. 당시 이 분야에 대한 중국의 전체적 기술 수준은 우리나라나 대만보다 좀 밀도는 상황이었다. 약 6명의 연구원과 함께 했는데 그 중 한명은 반도체 자동 설계 분야 중 새로운 2차원형 모델 레이아웃 생성기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미국 Caltech의 한 교수로부터 전화 인터뷰 한 번으로 그 자리에서 스카우트되었다. 또 토폴 성적이 620점 이상이었던 세 사람은 모두 미국으로 유학가고 다른 두 사람은 졸업후 고임금을 찾아 경제특구인 심천으로 직장을 잡았다는 소식을 최근 들었다. 인구에 비해할 만큼 많은 우수한 인력이 있는데 그 중 대부분 아니 전부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모두 해외로 나가고 싶어한다. 반면 그들의 시설을 볼 때 외관상 참 열악하지만 자연과학, 공학 부문에서 SCI에 등재된 국제 저널에 실린 논문수가 우리에게 비해 월등히 많은 저력을 갖고 있다. 한 연구원의 설명으로는 자신들의 과학 연구가 분배의 원칙에 따라 실시되어 논문수에서 가장 기여도가 높은 기초과학에도 알맞는 연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 한다. 또한 3년전 과학재단의 한·중 과학자 교환연수로 갔던 북경의 한 대학내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국가 중점연구소는 다른 대학과는 달리 훌륭하게 컴퓨팅환경을 갖춘 곳이었다. 이곳 주임교수도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연수를 시작하던 96년도에는 이전의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인터넷 분야로 변해 나가고 있었다. 중국은 빠리우짤 지화(863 계획)라 하는 과학 발전을 위한 범 국가적 프로젝트가 있다. 1986년 3월 유력한 몇 명의 과학자들이 그당시 등소평 주석에게 건의하여 그 자리에서 승인받은 계획이라 한다. 이 계획은 몇 단계에 걸쳐 생명과학, 신소재, 우주항공, 정보공학 등의 5개

의 특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 개발하는 것이다. 전자 및 정보통신분야에서도 반도체 설계 분야에 수천억의 돈을 들여 투자했다가 대만, 한국에 밀려 성공을 거두지 못하자 정보분야로 발걸음을 돌렸다 한다. 96년 3월 처음 북경의 그 연구소에 가서 그 대학 4학년생이 새로운 인터넷 검색 엔진을 위한 웹 브라우저를 자바를 사용하여 제작하는 것을 보고 아주 흥미로웠던 기억이 난다. 그 연구소 주임은 이 학생을 석사과정으로 받기 원하고 그 학생은 미국으로 유학하려고 준비하는 상황이었다. 그 주임교수는 영국 유학과 출신으로 다른 좋은 조건을 뿌리치고 사명감을 갖고 열악한 중국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었는데 요즈음 중국 젊은이들은 이렇게 멸사봉공의 레이펑(雷鋒) 정신으로 봉사하는 것에 냉소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현재 연소득 1만달러를 넘는 중국인이 3천만명, 우리나라 인구의 반이 넘는 숫자이다. 능력있는 중국의 젊은이들이면 누구나 이러한 대열에 끼기 원한다. 이러한 사회 변화는 개혁 개방이전의 중국의 담보를 깨고 발전에 가속을 하게 만든다.

미국의 많은 발빠른 컴퓨터 회사는 이 거대 시장을 내다보고 앞다투어 개척하고 있다. 마이크로 소프트의 경우 현재 중국내 대부분의 컴퓨터 사용자를 차지하고 있다. 자바 쉐도 자신의 자바의 국제화에 가장 중요한 언어 중 하나를 이 한자로 하여 이곳에 연구원을 파견하는 등 집중 연구를 하고 있다. 중국은 매정하

리만큼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만 취하고 득이 없으면 매몰차게 거절한다. 우리가 거대한 시장 중국의 두뇌 역할을 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의 정보화가 시급하다고 외쳤던 한 의원의 기사가 생각난다. 무척 공감어 되었고 두뇌의 역할은 그만큼 빠른 걸음과 노력과 절제가 요구된다는 것을 생각했다. 우리가 앞서나가 능력을 갖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해야만 한다. 중국은 동양의 여러 유익한 윤리와 도덕, 성실, 근면, 봉사정신의 긍정적인 측면과 개혁 개방에 따른 사고와 가치의 혼란, 비효율적인 부패, 부정직, 자존심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어울어져 있다. 이러한 것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잘 살린다면 거대한 인구와 자원을 가진 이나라는 세계의 주요한 나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중국에서의 생활이 조그만 개인의 공간과 시야에서 경험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발상의 전환은 내게 바로 옆에 있는 거대 중국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앞으로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많은 과학자들이 중국을 더 많이 알고 이곳에 유익이 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한다면 우리 나라가 다가오는 새로운 세계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하며 좁은 소견이나마 마음이 간절하다.

끝으로 한중과학자 교환연구 프로그램으로 이러한 좋은 기회를 제공해준 과학제단에 감사하는 바이다.